

여심 홀린 꽃세자들



왼쪽부터 '해를 품은 달' 김수현, '백일의 낭군님' 도경수,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

'꽃세자' (꽃미남+왕세자)는 안방극장에서 여심을 홀리며 작품 흥행을 견인하는 주요 캐릭터 중 하나다. 2012년 시청률 42%(닐슨코리아)에 달하며 큰 인기를 얻은 MBC TV '해를 품은 달' 속 왕세자 이현(김수현 분)부터 최근 지상파 드라마 남주인공들을 제치고 매력을 발산 중인 tvN 월화극 '백일의 낭군님' 속 왕세자 이율(도경수)까지 대표적인 꽃세자들을 정리해봤다.

'해품달' 김수현은 이 작품을 통해 '명품 아역'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는 데 성공했다. 활짝 자라 근롱포도 소화하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여심을 사로잡는 연기력이 바탕이 된 덕분이다.

김수현은 정치적 카리스마와 지혜, 첫사랑을 향한 순정까지 여심을 홀린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춘 이현을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그는 정치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을, 로맨스에서는 지고지순함과 어린 면을 보여주며 여성들에게 판타지를 심어줬다.

'퓨전사극'이란 웃을 입을 덕분에 김수현은 꽤나에서는 근엄하게 무개를 잡다가도 종로 거리에서 월(연우, 한가인)을 만났을 때는 마치 소개팅에 처음 나온 요즘 청년처럼 수줍어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

덕분에 김수현은 당해 MBC 연기대상에서 인기상과 남자 최우수상을 함께 거머쥐며 입대 전까지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자유자재로 오갔다.

2016년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내시 라운

김수현→박보검→도경수 왕세자 계보
'해를 품은 달' 부터 '백일의 낭군님'까지
퓨전사극으로 로맨스 가미 여심 저격

(김유정)과 사랑에 빠진 세자 이영으로 분한 박보검 역시 '꽃세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인물이다.

박보검은 쇠락해가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왕세자 그 자체였다. 박보검은 '해품달'과 마찬가지로 퓨전 사극이었던 이 작품을 통해 귀여운 모습부터 근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까지 다양한 매력을 자랑하며 최고 스타가 됐다.

그는 그야말로 '예쁜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 사슴을 닮은 눈과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젊은 여성은 물론 '어머니'들까지 사로잡으며 '구르미 그린 달빛'이 시청률 23%까지 찍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아울러 박보검 역시 당해 KBS 연기대상에서 네티즌상, 베스트 커플상, 남자 최우수상을 거머쥐었고 광고 시장에서도 불투명으로 떠올라 현재까지 인기는 진행형이다. 한편으로는 '구르미 그린 달빛'은 인기가 너무 높았던 탓에, 박보검은 차기작을 '남자친구'로 정하기까지 2년이 보내며 고심을 깊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백일의 낭군님'은 꽃세자의 세대교체를

알렸다.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중 한 명인 디오로 불린 도경수는 영화 '카트', '형', '7호실', '신과함께' 시리즈 등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이어 방송가에 시놉시스가 돌 때부터 흥행이 예견된 tvN '백일의 낭군님' 주연을 꿰찼고, 세자 이율 역과 기역을 잃은 '아.스.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 원복이를 능청스럽게 오가며 안방극장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도경수는 까칠한 세자, 무뚝뚝하지만 정 깊은 원복, 궁으로 돌아와 홍심(남지현)을 잊지 못하는 세자 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낸다는 평을 받는다. 동글동글 예쁜 밤들 같은 외모도 작품의 만화 같은 면을 돋보이게 한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드라마는 시청률 11%를 돌파, 지상파를 포함해 월화극 1위를 달린다.

방송가 한 관계자는 21일 "왕세자는 즉위해 권력을 잡기까지 수많은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풀어내기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퓨전사극이라는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가 가미될 수 있어 정준스타의 훈훈한 비주얼과 종종한 스토리가 잘 조합된다면 크게 흥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어' 편견 넘어 소울 푸드로 재조명

광주MBC '핑크피쉬' 오늘부터 3부작

광주MBC가 기획·제작한 '핑크피쉬'가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 연속 3주 방송된다.

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로 폄하되고 있는 홍어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소울 푸드이자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재해석된다. 총 3부작으로 제작된 '핑크피쉬'는 '맛으로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획된 푸드멘터리다.

먼저 아이슬란드인들의 홍어사랑이 단독으로 처음 공개된다. 또한 뉴욕커피들이 먹는 홍어요리도 화면에 담았다.

이를 위해 스타 셰프 세 사람이 나섰다. 박찬일, 박준우, 남성렬 등 셰프들이 우리처럼 홍어를 식해먹는 아이슬란드와 홍어요리를 대중화한 뉴욕 현지 촬영에서 돌아와 홍어 메뉴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전혀 새로운 홍어요리가 올라온 식탁에는 배우 김의성과 가수 김나니가 초대됐다.

기획 김민호, 연출 백재훈·최선영, 촬영 박노현·이정섭·정충관, 구성 박보영·천지은.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지 "25살 생일 맞아 1억원 기부"

생명나눔실천본부, 불치병 환아 치료비 지원

광주 출신 가수 겸 배우 수지(24·본명 배우수지)가 지난 10월 25번째 생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1억원을 기부했다.

20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수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기·인체조직·호혈세포 희망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1억원을 전달했다. 수지의 기부금은 소아암과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을 한 수지는 2015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터'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올해는 '바보의 나눔'을 통해 미혼모 지원단체에 2000만원, 국제구호단체 월드머시코리아에 베트남과 라오스 교육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후원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미야
[9]	30 KBS 뉴스	00 차대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 (재) 50 UHD 한식의 마음 (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구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배드파파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팀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열린채널 광주(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제32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구르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변신자동차 또봇-정의의 또봇	15 MBC 플러스특선 단편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일이(재) 20 2018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 <한화:넥센>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핑크피쉬	
[9]	00 KBS 뉴스 9			40 SBS 8 뉴스 55 KBC 8 뉴스
[10]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1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지역MBC 공동기획 지역독립선언	2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국악한마당	35 비바 K리그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양파덮밥과 무생채>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매우 문명기행 1부 쿠스코, 잉카를 품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30 EBS 뉴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라(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반전매력 독일 1부 남만가도 동화 속으로>
08:45 방귀대장 뽀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소송기행2 1부 고소한 사랑방>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딱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36년생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48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라. 60년생 충실히 대응하면서 앞만 여건으로 만들자. 72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라. 84년생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니 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1, 77	37년생 예의 없이 적용 될 것이다. 49년생 발언하기 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라. 61년생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73년생 상대의 조언을 가볍게 여긴다면 남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결실을 취하는 바가 풍성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45	38년생 여러 번의 기회들이 지나갈 것이니 잘 살펴봐야겠다. 50년생 일관된 면모와 지속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62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74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라리라. 86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행운의 숫자 : 47, 67	39년생 걸음로는 뜻을 같이 하는 체 하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다. 51년생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당황하라. 63년생 받아들인다면 효율적으로 도움이 된다. 75년생 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행운이 다가오는 장면이다. 행운의 숫자 : 77, 60	40년생 경거망동 한다던 다 된 밤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52년생 행운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64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라. 76년생 많은 문제점들이 보인다. 88년생 양자 사이에서 처신하기 어렵겠다. 행운의 숫자 : 25, 38	41년생 도모하던 바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53년생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65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으나, 77년생 공리를 잘 하여서 대처 하여야겠다. 89년생 어떠한 구도가 되더라도 소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9, 71	42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54년생 부분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66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하라. 78년생 앞서 가려한다면 오히려 약화 되리라. 90년생 확실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69, 37	43년생 주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67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는다. 79년생 지금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91년생 주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4, 28	44년생 처음 것이 백 년 낡다. 56년생 꽤도난만 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68년생 건전하여 손해는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가담하여도 무방하다. 80년생 숭신 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92년생 격정에 봤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7, 14	45년생 진술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57년생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 69년생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다. 81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마라. 93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 받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6, 56	34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응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46년생 다른 길을 모색하라. 58년생 전문성이 없다면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 70년생 철저히 살피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82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6, 86	35년생 어려운 상황 뒤에 기회가 이어질 징조이다. 47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59년생 고역이 따를 수도 있다. 71년생 획기적인 발전성이 있어 보이나 수용한다면 유익하리라. 83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어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0, 80